중국, 한국 사드 배치 맹비난 '여론몰이'

기관지 인민일보 등 연일 보도

러시아와 공동대응 필요 주장

중국이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연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 지도부를 향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보복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사설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고 한반도를 새로운 모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본국의 장기적 이익과 민중의 이익에서 출발해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현실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호랑이를 키워 우환을 만들고 늑대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며 "잘못을 깨달아 고치지 않으면 불로 자신을 태우고 악과(惡果·나쁜 열매)를 스스로 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이날 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의 칼럼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국에 득보다 실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부추겨 한국을 더 큰 위협 속에 몰아넣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이날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 연구원 부원장,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방무(군사)관계 연구센터 주임, 정지융 푸단대 조선·한국 연구센터 주임 등 전문가들의 사드에 관한 견해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 경제무역 분야의 징벌(제재나 보복), 한미를 비판하는 국제적 여론 조성, 중·러간 사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하고 사드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는 등 연일 '사드 불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리천장 내가 깨주지" 미·일 정가에 부는 女風

69년 만의 첫 여성 日 도쿄 지사

무소속 고이케 유리코 당선

제2한국학교 백지화 주장

지난 31일 실시된 일본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여성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됐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지사 개표를 완료한 결과 무소속 고이케 유리코(여·64·사진) 후보가 291만2628표(득표율 44.5%)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947년 도쿄 지사를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9번째 지사이며 여성으로는 첫 도쿄 지사가 된다. 일본에서 여성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사로 선출된 것은 2000년에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된 오타 후사에가 처음이었으며 고이케 당선자가 역대 7번째다.

현재 일본의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여성 수장은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와 요시무라 미에코 야마가타현 지사 2명인데 고이케 당선자까지 3명으로 늘게 됐다.

고이케 당선자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자민당의 지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해 여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후보를 누르고 도쿄지사에 오르게 됐다. 수도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당이 지지한 후보가 패한 것은 아베 신조 정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당선자는 지난 31일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보도 직후 기자회견에서 "여성 지사로서 여성 정책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결실이 있고 행복한 도쿄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첫 여성 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도 낙마한 전임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의 정치자금 문제를 검증하는 조직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서둘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첫 여성 도쿄지사 고이케 유리코 (무소속·64)

- 1947년 이후 9번째 민선 지사

- 효고 현 출신
- 이집트 카이로대 사회학과 졸업

주요 경력
- 일본TV·TV도쿄방송 캐스터 활동
- 참의원 1선, 중의원 8선
-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특이 공약
- 제2 한국학교 부지대여 재검토

고이케 당선자는 전임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가 도쿄 신주쿠의 구 도립고교 부지에 제2 한국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유상대여하기로 한 것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이케 당선자는 참의원 1선(임기 중 사퇴), 중의원 8선을 기록한 중견 정치인으로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전대 효과? 힐러리, 트럼프에 1~6%P 앞서

거시기(?)한 힐러리 벽화 호주 멜번 교외에서 한 남성이 지난 31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성조기 모양 수영복을 입고 지폐 다발을 옆구리에 찬 모습을 그린 벽화를 사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친 전당대회 흥행 효과를 등에 업고 경쟁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지지율 면에서 1~6%포인트 앞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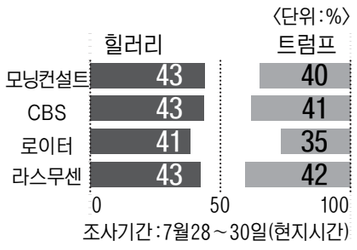
클린턴으로서는 올 초 경선 이후 꾸준히 이어왔던 우세를 지난주 공화당 전대 직후 빼앗겼다가 되찾은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대 직후 유권자 1931명을 상대로 실시해 대선을 꼭 100일 앞두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은 43%의 지지를 얻어 40%에 그친 트럼프를 제쳤다.

한 주 전에는 트럼프가 44%로 40%에 그친 클린턴을 앞섰으나 역전된 것. 화려한 찬조 연사가 출연해 화합의 잔치를 연출한 민주당 전대의 흥행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유당 게리 존슨 후보까지 넣어 조사하면 클린턴의 우위는 5%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클린턴은 무당파와 남성,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 미국 CBS 방송이 민주당 전대 이후인 29~30일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경합 주 11곳 유권자 2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클린턴 지지율이 43%로, 트럼프를 2%포인트 차로 앞섰다.

■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트럼프(42%)가 클린턴(41%)을 1%포인트 차로 리드하던 지난주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전대 하루 뒤인 29일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클린턴은 41%의 지지를 얻어 35%를 기록한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앞섰다.

앞서 클린턴은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28일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43% 지지를 얻어 42%인 트럼프를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42 서량의 맹장 마초

마초(馬超, 175-222)는 부풍군 무릉현 출신으로 자는 맹기다. 조조에게 패한 후 촉한의 유비에게 귀순해 촉한의 장수가 되었다. 관우, 장비, 조운, 황충과 함께 5호장군으로 불렸다.

211년 그는 한수와 함께 반 조조 군사를 일으켰으나 위남전투에서 대패했다. 그 바람에 부친과 종족 200여명이 주살되었다. 마초와 한수의 연합군에 밀려 고전한 조조는 참모 가후의 계책으로 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데 성공했다. 한수는 조조와 같은 해 효렴이 되었고 동갑내기였다. 원래 한수와 마초는 사이가 껄끄러웠으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연합한 관계였다. 한수를 신임하는 제스처로 마초의 불신감을 조장하는데 성공했다. 둘은 갈라섰고 조조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크게 패해 달아났다. 조조의 참모 양부는 "마초는 한신과 경포의 용맹을 지녔고 또 오랑캐의 마음을 갖고 있다. 만일 대군이 돌아가 그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하면 농상의 여러 지방은 위나라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조가 가장 두려워한 장수

그는 오랑캐인 융족을 잘 통솔하여 농상의 군현을 공격해 차지했다. 양주자사 위강을 죽이고 기성을 점령했으며 스스로 정서장군에 병주목을 겸하고 양주의 군사를 총괄했다. 213년 위강의 잔존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자 처자식을 잃고 한중의 장노에게 달아나 투항했다. 그러나 장노에게 신임 받지 못하자 유비에게 귀순하기를 청해 그의 휘하 장수가 되었다. 유비는 그를 평서장군으로 임명하고 도정후에 봉했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좌장군이 되었다.

그는 대대로 귀족가문인 관계로 처음에는 유비에게 공손치 않았다. 유비와 대화할 때 주군의 예 대신에 늘 유비의 자를 불렀다. 관우가 화가 나 그를 죽이려 하였다. 유비는 "사람들이 나에게 귀의하는데 그대들이 화를 내며 죽이려고 하니 천하가 어찌 볼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장비가 "그러면 그에게 예를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유비가 주재하는 회의장에 들어가니 관우와 장비가 유비 곁에 서 있었다. 다시는 유비의 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오늘 군주의 자를 불렀기 때문에 관우와 장비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며 이후 경외심을 갖고 유비를 모셨다고 한다.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에는 야전마초(夜戰馬超)라는 장면이 나온다. 익주목 유장이 유비에게 공격을 받자 한중의 장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장노는 마초를 보내 유비측의 장비와 일전을 벌인다. 범같은 두 맹장이 맞붙어 200여 합을 싸웠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천 여개의 횃불로 대낮처럼 밝히고 둘은 다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삼국지에서 가장 통쾌한 싸움 장면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소설속의 허구로 사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 전략(典略)이라는 사서에는 "장노의 장수 양백 등이 수차례 걸쳐 음해하자, 마초는 마침내 무도로부터 저중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촉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관우와의 갈등설도 흥미롭다.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관우는 맹장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들 관평을 멀고 먼 성도의 유비에게 보내 "서천으로 들어가 마초와 우열을 가리고 싶소"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제갈량이 편지를 보내 그의 허영심을 한껏 추켜 세워주자 그 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고 마초와의 대결을 포기했다고 한다. 관우의 이러한 유치함이 결국 후일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221년 양주목을 겸하고 태양후에 봉해졌다. 222년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시 "저희 집안 200여명은 조조에게 주살당해 거의 전멸되고 오직 사촌동생 마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쇄락한 집안의 제사를 이을 사람이니 폐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소를 올렸다. 사후 위후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그의 용맹은 조조조차 두려워해 "마초가 죽지 않은 한 나에게는 묻힐 땅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조에게 부친 등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농상의 양부, 강서 무리에게 처자식마저 잃게 됐다. 천하 맹장의 기구한 삶이 아닐 수 없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공장]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상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메인 상업지구 3층상가 건물 238㎡ 카페, 식당, 병의원 추천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1억8천2백(36%)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공장]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인근 신축 공장 유통시설활용가능 대지 5,585㎡ 건물 1,510㎡ 감정가 10억9천7백 ▶최저가 6억1천4백(56%)
★ [원룸]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음 ▶매매 20억원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융18억 ▶매매 48억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하가취득)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융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융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